

종합적 사고유형과 장기 지향성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 근접성의 매개효과*

임 지 은†

충남대학교

본 연구는 미래 자기 연속성의 동서양 문화 차를 비교한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이 결과를 개인차 또는 상황 차이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서, 종합적 사고유형과 장기 지향성이 미래 자기 연속성을 높이는지를 보고자 했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 1에서는 종합적 사고유형과 장기 지향성의 개인차가 미래 자기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 2와 3에서는 각각 종합적 사고유형 및 장기 지향성을 조작한 후, 미래 자기 연속성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종합적 사고유형을 보일수록, 장기 지향적일수록 미래 자기 연속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관계는 미래를 가깝게 느끼는 특성에 의해 매개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미래 자기 연속성, 종합적-분석적 사고유형, 장기 지향성, 시간적 거리, 미래 근접성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54517).

†교신저자: 임지은,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궁동, 충남대학교), E-mail: jelim151@gmail.com



© 2023,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우리는 다양한 시간에 걸쳐 존재하는 각기 다른 자기를 통합해서 같은 자기라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지식적 차원에서 아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것은 다르다. 예를 들어, 자신의 돌 사진을 보면 현재 자기와 매우 다르게 생겼으나 이것이 같은 자기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돌 시절의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로 느낄 것이다(James, 1950). 이런 현상은 미래 자기를 생각할 때도 유사하다.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미래 자기에 관해서는 다소 타인처럼 느낀다(Hershfield, Wimmer & Knutson, 2009; Pronin, Olivola & Kennedy, 2008). 미래는 경험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수준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미래 자기에 관해 생각했을 때 현재 자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타인처럼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현재 자기처럼 느낀다(Bartels & Urminsky, 2011; Hershfield, Wimmer et al., 2009). 이렇게 현재 자기와 미래 자기를 연관 지어 생각하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미래 자기와 현재 자기가 연결된 정도에 관한 지각을 미래 자기 연속성(future self-continuity), 또는 미래 자기 연결성(connectedness to the future self)이라 부른다(Bartels & Rips, 2010; Hershfield, Garton, Ballard, Samanez-Larkin & Knutson, 2009).

미래 자기 연속성에 관한 초반 연구는 주로 미래 자기 연속성이 판단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이는 미래 자기 연속성이 다양한 적응적 상태 및 행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미래 자기 연속성이 높은 사람들은 미래 자기를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참고 인내하는 경향을 보인다(Bartels & Urminsky, 2011). 따라서 미래 자기 연속성은 저축(Hershfield, Garton, et al., 2009), 공부를 미루지 않는 태도(Blouin-Hudon & Pychyl, 2017), 건강 관리(Rutchick, Slepianet, Reyes, Pleskus & Hershfield, 2018), 충동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의 억제(Hershfield, Cohen & Thompson, 2012)와 관련이

있다. 게다가, 미래 자기 연속성은 안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리적인 안녕감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kol & Serper, 2019b; Zhang & Chen, 2018).

한편, 미래를 지각하는 방식은 환경에 따라 변한다. 즉, 맥락 의존적이다(Peetz & Wilson, 2008). 미래 자기 연속성 역시 미래 자기를 지각하는 방식이므로 맥락 의존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시간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맥락 변수로 문화가 있다. 예상한 바대로, 미래 자기 연속성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난다(Ji et al., 2019). Ji 등(2019)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계 캐나다인과 비교했을 때 중국인은 과거나 미래 시간을 가깝게 느꼈으며, 그 결과 미래 자기 연속성을 높게 지각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지배적인, 주변의 맥락을 중시하는 특징 때문이라고 본다. 동아시아 문화권과 서양 문화권을 구분하는 심리적 특징 중 사고유형(thinking style)이 있다(Nisbett, Peng, Choi & Norenzayan, 2001). 종합적 사고(holistic thinking)를 하는 동아시아 사람들은 분석적 사고(analytic thinking)를 보이는 서구 문화권의 사람보다 대상을 파악할 때 대상 그 자체보다도 대상의 맥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Ji, Guo, Zhang & Messervey, 2009; Ji, Peng & Nisbett, 2000). 이 맥락 의존적인 특성은 시간 지각에서도 마찬가지다. Hofstede와 Bond (1988), Hofstede, Hofstede와 Minkov(2010)는 문화를 구분하는 여러 차원을 설명하였는데, 이 차원들 중 시간 지향성(time orientation)은 동서양의 차이를 보여준다. Hofstede 등(2010)은 동아시아 사람들이 현재로부터 먼 시간을 가치 있게 판단하는 장기 지향성(long-term orientation)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현재 해야 할 행동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에 집중하며(Hofstede et al., 2010), 그 결과 미래에 얻을 보상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Bearden, Money & Nevins, 2006; Lastovicka, Bettencourt, Hughner & Kuntze, 1999). 따라서 위

연구의 결과는 동아시아인이 현재 자기를 구성하는 맥락 중 하나인 미래 자기를 서구인보다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미래 자기 연속성이 높게 지각되었을 수도 있다.

연구에 따르면, 미래 자기 연속성은 미래 자기를 가깝게 느낄수록 증가한다(Nurra & Oyserman, 2018). 그런데, 동아시아 사람들이 맥락 중심적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서구인보다 미래를 더 가깝게 지각한다고 보고된다(Lee, Lee & Kern, 2011), 동아시아 사람은 대상의 주변에 집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며(Maddux & Yuki, 2006), 그 결과 미래의 사건을 더 가깝게 지각한다는 것이다(Lee et al., 2011). 따라서 Ji 등(2019)의 연구에서 중국인이 과거나 미래 시간을 가깝게 느끼고, 그것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친 이유는 이들이 맥락 의존적 특성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장기 지향적 사고나 종합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위 연구에서는 문화의 차이를 구분했을 뿐, 두 집단의 종합적 사고유형 수준이나 장기 지향성 수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고유형이나 시간 지향성은 문화 차변인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개인 차원의 변인이기도 하며, 외부 상황에 의해 변하는 변이기도 하다. 다수의 연구(예: 양윤, 이한솔, 2017; 양윤, 최현진, 2019; Wong & Wyer, 2016)에서 사고유형이나 시간 지향성을 점화하거나 혹은 개인차 변인으로 두고 연구하였다. 예를 들어 Wong과 Wyer(2016)의 연구에서는, 집단주의나 시간 지향성에 따라 관점 유연성(perception flexibility)이 달라진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과 인도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동일한 문화 집단(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미래의 시간적 거리 지각을 문화 차이로 살펴본 Lee 등(2011)의 연구 결과는 Spassova와 Lee(2013)의 연구에서 상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재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

려한다면, 단순히 미래 자기 연속성의 문화 차를 보는 것에서 벗어나 과연 이 경향성이 일반적으로 통용될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으리라 본다.

미래 자기 연속성

Parfit(1971)에 따르면, 현재를 사는 우리는 시간이 다른 자기에 대해 현재 자기와는 다른 존재처럼 여길 수 있다. 먼 시간에 존재하는 자기는 현재 자기를 구성하는 내용과 다른 것으로 구성될 것이다. 시간이 현재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그렇다. 예를 들어, 오늘의 내가 대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내일의 나도 대학생이라는 정체성으로 설명하기 쉽다. 하지만 30년 뒤의 자기는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는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진다. 따라서 미래 자기는 현재 자기와는 다른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다.

심리학 연구는 이 명제를 일부 증명하였다. Hershfield, Wimmer 등(2009)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특정한 성격 특성을 제시하고, 이것이 현재의 나, 미래의 나, 현재의 타인, 미래의 타인에게 속할지를 생각하게 한 다음, 생각할 당시의 뇌의 패턴을 촬영했다. 그 결과, 참여자가 미래 자기를 생각할 때의 뇌의 패턴은 현재 자기보다는 타인을 생각할 때의 뇌의 패턴과 비슷했다. Pronin 등(2008)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현재 자기가 할 행동을 선택하거나, 미래 자기가 할 행동을 선택하거나, 타인이 해야 할 행동을 대신 선택하게 했다. 연구 결과, 미래 자기가 할 행동은 현재 자기보다는 타인을 대신해서 고른 선택지와 비슷했다. 즉 미래 자기는 어느 정도 타인처럼 지각되며, 미래 자기와 관련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는 현재 자기보다 타인에게 하듯 이루어진다.

하지만, 타인처럼 인식하는 수준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미래 자기를 완전히

낮선 타인처럼 판단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낯선 타인보다는 가까운 사람처럼 판단한다. 미래 자기 연속성은 이 차이를 측정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미래 자기를 현재 자기와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미래 자기 연속성은 높겠지만, 미래 자기를 낯선 타인처럼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미래 자기 연속성은 낮다(Hershfield, Garton et al., 2009).

미래 자기 연속성의 차이는 개인의 성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Bartels & Urminsky, 2011; Nurra & Oyserman, 2018). 이 사실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미래 자기 연속성은 다양한 적응적 행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 자기 연속성은 자기 통제¹⁾와 관련이 있다(Bartels & Urminsky, 2011). 미래 자기를 현재의 나처럼 생각하는 경향성이다 보니 미래 자기 연속성이 높다면, 미래 자기를 위해 지금 주어지는 단기적인 만족을 양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미래 자기 연속성은 공부를 미루지 않거나(Blouin-Hudon & Pychyl, 2015), 미래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Rutchick et al., 2018), 저축하거나(Hershfield, Wimmer et al., 2009), 현재의 부도덕한 유혹이나 충동에 빠지지 않는 것(Hershfield et al., 2012)과 관련이 있다. 게다가, 미래 자기 연속성은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고(Hershfield, 2011; Sokol & Seper, 2019a), 자기 개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리적 안녕감을 높인다(Sokol & Seper, 2019a). 이렇게 다양한 맥락에서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기에, 연구자들은 미래 자기 연속성이 어느 조건에서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예: Ji et al., 2019; Molouki & Bartels, 2017; Nurra & Oyserman, 2018).

1) 여기서 자기 통제는 Inzlicht, Werner, Briskin & Roberts(2021)의 정의를 따라, 현재의 작은 유혹과 미래의 목표 사이에서 지금 얻을 수 있는 이득(유혹)을 참고 미래의 목표를 선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미래 자기 연속성과 사고유형 및 시간 지향성

미래 자기 연속성은 미래에 관해 생각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미래 자기 연속성은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세상을 달리 말하자면 내가 판단하려는 대상이나 사건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시간도 포함된다.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문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화권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를 판단하는 정도가 다르며(Hofstede et al., 2010; Zimbardo & Boyd, 2008), 대상을 분석하는 방식도 다르다(Ji et al., 2000; Nisbett et al., 2001). Ji 등(2019)은 미래 자기 연속성에서 동서양 문화의 차이가 난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중국인과 서구 문화권 국가인 캐나다에 거주하는 백인을 대상으로 미래 자기 연속성을 측정하였는데, 중국인의 미래 자기 연속성이 캐나다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국인들은 캐나다인과 비교해서 미래나 과거를 더 가깝게 지각했으며, 그로 인해 미래 자기 연속성이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는 동아시아의 맥락 중심적인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한 듯하다. Nisbett 등(2001)에 따르면 집단주의 성향이 있는 동아시아 사람들은 집단에 주목하기에 대상을 파악할 때 대상과 관련이 있는 관계를 고려하는 특성을 보인다. 대상을 다양한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종합적 사고유형이라 부른다. 반면에 개인주의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서양에서는 개인, 즉 대상 자체를 파악하고 분석하려는 분석적 사고유형이 두드러진다(Ji et al., 2000; Nisbett et al., 2001). 시간을 대상으로 놓고 보자면, 미래나 과거는 현재의 맥락이 된다(Bearden et al., 2006; Ji et al., 2019). 과거는 현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미래는 현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현재만 생각하기보다는 현재의 맥락인 과거나 미래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Ji 등(2009)의 예를 보면, 어떤 사람의 행실을 평가할 때 동아시아 사람들은 사건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에 집중했다. 맥락을 고려하는 특성이 대상의 궤적에 집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마찬가지로 자신의 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연결성에 주목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Ji 등(2019)의 연구에서 동아시아 사람들이 미래 자기 연속성이 높았던 이유는 맥락 중심적 사고가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맥락 중심적인 특징과 시간 지각의 관계는 Hofstede 등(1988, 2010)의 시간 지향성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Hofstede 등(1988, 2010)에 따르면 동아시아와 타 문화권은 시간 지향성에서 차이가 난다. 한국을 포함한 유교 문화권에서는 현재로부터 먼 시간에 가치를 두는 장기 지향적 성향을 보이는 한편, 다른 문화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기 지향적 성향을 보인다. 장기 지향적인 사람은 먼 미래에 관심을 가지며, 이런 특징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보상에 주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Bearden et al., 2006). 예를 들어, 장기 지향적인 문화권에서는 저축이나 교육 등에 신경을 많이 쓴다. 장기 지향적이라면 미래의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내용에 가치를 두므로, 미래 자기 연속성이 높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은 종합적 사고유형과 장기 지향성은 문화적 특징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성향이기도 하다는 점이다(김범준, 2016; 양윤, 이한슬, 2017; 양윤, 최현진, 2019; Bearden et al., 2006; Choi, Koo & Choi, 2007; Wong & Wyer, 2016). 게다가, 점화 과제를 통해 종합적 사고유형과 장기 지향성을 점화할 수도 있다(Hong, Sedikides & Wildschut, 2021; Kopalle, Lehmann & Farley, 2010). 다수의 연구를 통해 두 특징은 개인차로도, 상황 차 변인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Ji 등(2019)의 연구에서는 문화 차이로 비교했을 뿐,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종합적 사고유형이나 장기 지향성 수준

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다. 다만 “미래와 과거는 현재의 맥락(p. 736)”이라는 문구로 이 가능성을 확인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종합적 사고유형 및 장기 지향성을 직접 측정하여 미래 자기 연속성이 이런 특징에 의해 변화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를 최대한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에서 실시하여, 단순히 문화 차이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종합적 사고유형과 장기 지향성이라는 구체적인 특성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개입한다고 보고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1. 종합적 사고유형일수록 미래 자기 연속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장기 지향적일수록 미래 자기 연속성이 높을 것이다.

미래 자기 연속성과 미래 근접성

Ji 등(2019)의 연구에서, 미래나 과거를 가깝게 느끼는 정도가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쳤다. 시간적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같은 시간적 거리더라도 개인의 관점에 따라 가깝게 혹은 멀게 느낄 수 있다(예: 임지은, 2019; Peetz & Wilson, 2008). 연구에 따르면, 동아시아 사람들은 서양인과 비교했을 때 미래를 더 가깝게 느낀다고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1; Maddux & Yuki, 2006). 이는 미래의 사건에 관해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려는 특징 때문이다. Maddux와 Yuki(2006)는 동아시아 사람들이 미래의 사건에 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요소를 본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상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수록 그 대상과의 거리는 가깝다고 생각한다(Lee et al., 2011; Trope & Liberman, 2010). 따라서 주변을 생각하는 특징이 미래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깝게 느끼도록 할 수 있다.

유사하게, Wong과 Wyer(2016)의 연구에서는 장기 지향적인 사람들이 시간상으로 멀리 떨어진 사건이나 대상에 관해서 하위 해석 수준, 즉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장기 지향성이 미래를 가깝게 느끼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한다. Ji 등(2019)의 연구에서 중국인이 백인인 캐나다인보다 자기 연속성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현재가 아닌 시간을 더 가깝게 지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중국인은 과거를 익숙하게 느끼기 때문에 가깝게 지각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현재가 아닌 시간을 익숙하게 느끼는 특징은, 비록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장기 지향적 성향을 암시한다.

흥미롭게도, 미래를 가깝게 느낄수록 자기 연속성은 증가한다. Nurra와 Oyserman(2018)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에 따라 시간적 근접성을 다르게 조작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한 집단은 성인이 되기까지의 기간이 가깝다는 글을 읽었고, 다른 집단은 멀다는 글을 읽었다. 연구 결과, 성인이 된 미래 자기가 더 가깝다고 지각한 집단은 미래 자기 연속성이 더 높았다. Rutt과 Löckenhoff(2016)의 결과도 유사하다. 여기서는 연령 비교를 했기에 제한적일 수는 있으나 마찬가지로 시간 개념과 자기 연속성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청년과 비교했을 때 노년이 같은 단위의 시간도 더 가깝다고 지각했으며, 자기 연속성도 그와 비례해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미래의 시간을 가깝게 느끼면 미래 자기 연속성은 증가한다. 종합하자면, 장기 지향성이나 종합적 사고가 미래를 가깝게 느끼도록 하고, 그 결과 미래 자기 연속성이 높게 지각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에서 가설의 모형을 확인할 수 있다.

가설 3. 종합적 사고유형과 미래 자기 연속성의 관계를 미래 근접성이 매개 할 것이다.

가설 4. 장기 지향적 성향과 미래 자기 연속성의 관계를 미래 근접성이 매개 할 것이다.

연구 1에서는 종합적 사고유형과 장기 지향성의 개인차에 따라 미래 근접성 및 미래 자기 연속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이후 변인 간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추가 실험인 연구 2 및 연구 3을 진행하였다.

연구 1

방법

연구 대상

충청도 소재 모 대학교 내 재학생 및 서울 소재 모 대학교 내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일주일 동안 익명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중도 탈락한 11명을 제외한 총 40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60%, 평균 나이는 만 21.5세였다.

측정 도구

사고유형

Choi 등(2007)의 분석적-종합적 사고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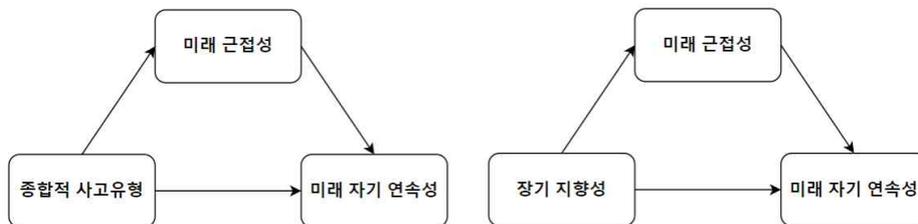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analysis holism scale)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적-종합적 사고 척도는 인과성(예: “우주의 모든 현상은 인과관계로 얽혀 있다.”), 모순에 관한 태도(예: “극단적인 의견으로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 변화 지각(예: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의의 위치(예: “어떤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부분보다는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의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총 24문항이며, 7점 척도(1: 전혀 아니다, 7: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종합적 사고유형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각 차원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인과), .63(모순), .73(변화), .75(주의)이었다.

장기 지향성

Bearden 등(2006)의 장기 지향성 척도(long-term orientation scale)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장기 지향성 척도는 전통(예: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과 계획(예: “나는 미래의 성공을 위해 오늘 희생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의 2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영역에 4문항씩 총 8문항이며, 7점 척도(1: 전혀 아니다, 7: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각각 .77(전통), .86(계획)이었다.

미래 근접성

연구 참여자에게 미래를 상상하라는 지시문을 준 뒤 “지금으로부터 10년 뒤가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십니까?”를 1부터 10까지 슬라이드 형식으로 제시하였다(1: 전혀 아니다, 10: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이 측정 방식은 임지은(2017) 및 Zauberman, Kim, Malkoc & Bettman(2009)의 측정 방식을 응용한 것이다. 슬라이드는 마우스를 사용해 0.5 단위로 증가시킬 수 있다. 문항 옆에 실제 날짜(예: 2032년 11월)를 제시하여 10년 뒤라는 단어가 주는 모호함을 최소화

화하였다.

미래 자기 연속성

Hershfield, Garton 등(2009)과 Bartels와 Urminsky(2011)에서 사용한 자기 연속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현재 자신과 10년 후 미래의 자기가 타인처럼 느껴지는 경우(1번)부터 나랑 유사하게 느끼는 경우(7번)까지 총 7개의 벤 다이어그램이 있으며 이 중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을 선택하게 한다. 부록 1에서 실제 사용한 벤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다.

연구 과정 및 자료 분석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종합적 사고유형, 장기 지향성, 미래 근접성, 미래 자기 연속성을 측정하였다. 설문 내용은 IRB의 심의를 받았으며, 참여자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참여 보상으로 3,000원 상당의 기프트콘이 제공되었다. 가설 1과 2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적 사고유형, 장기 지향성, 근접성, 미래 자기 연속성의 상관 분석 및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근접성의 매개효과인 가설 3과 4를 확인하고자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model 4)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도구는 SPSS 21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논의

미래 자기 연속성이 사고유형 및 장기 지향성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의 상관 계수와 기술 통계량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종합적 사고유형($r = .226, p < .001$) 및 장기 지향성($r = .263, p < .001$)은 미래 자기 연속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각 변수의 하위 요인 역시 종합적 사고유형의 ‘모순에 관한 태도’, ‘변화 지각’ 하위 요인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미래 자기 연속성과 정적으로 유의

표 1. 종합적 사고유형, 장기 지향성, 미래 근접성, 미래 자기 연속성의 기술 통계량 및 변수 간 상관

변수	H인과	H모순	H변화	H주의	AHS	LOT-P	LOT-F	LOT	근접성	FSC
H인과	1									
H모순	.222***	1								
H변화	.100*	-.202***	1							
H주의	.385***	.356***	-.064	1						
AHS	.725**	.557***	.383***	.698***	1					
LOT-P	.115*	.067	.090	.068	.145**	1				
LOT-F	.167**	.118*	.075	.106*	.197***	.431***	1			
LOT	.169**	.112*	.097	.105*	.205***	.822***	.868***	1		
미래근접성	.457***	.055	.223***	.318***	.452***	.311***	.394***	.420***	1	
FSC	.274***	-.017	.097	.171**	.226***	.185***	.256***	.263***	.266***	1
<i>M</i>	5.570	4.712	4.853	5.062	5.049	4.670	5.265	4.968	6.644	5.400
<i>SD</i>	0.884	0.827	0.921	0.858	0.513	1.335	1.162	2.113	1.447	1.299

* $p < .05$, ** $p < .01$, *** $p < .001$.

H = 종합적 사고유형; AHS = 종합적 사고유형 점수 총합의 전체 평균; LOT = 장기 지향성(총합 점수의 전체 평균); LOT-P = 장기 지향성(전통); LOT-F = 장기 지향성(계획); FSC = 미래 자기 연속성

미했다. 다만, 측정 인원수로 인해 유의미하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계수는 .171(종합적 사고유형의 ‘주의의 위치’)부터 .274(종합적 사고유형의 ‘인과성’)까지 약한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단순 회귀 분석 결과, 종합적 사고유형($B = 0.024$, $t = 4.664$, $p < .001$) 및 장기 지향성($B = 0.040$, $t = 5.476$, $p < .001$)은 미래 자기 연속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종합적 사고유형, $R(1,403) = 21.752$, $p < .001$; 장기 지향성, $R(1,403) = 29.989$, $p < .001$). 따라서 가설 1과 2는 지지되었다.

가설 1과 2를 더 명확하게 보고자, 구체적으로 종합적 사고유형과 장기 지향성의 어떤 세부 요인이 미래 자기 연속성을 잘 설명하는지 하위 요인을 회귀 분석하였다. 종합적 사고유형의 하위 요인의 경우, ‘인과성’($B = 0.060$, $t = 4.689$, $p < .001$)과 ‘주의의 위치’($B = 0.029$, $t = 2.148$, $p = .032$)가 미래 자기 연속성을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설명하였다($R(4,400) = 10.488$, $p < .001$). 장기 지향성의 경우, ‘계획’($B = 0.053$, $t = 4.061$, $p < .001$)이 미래 자기 연속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R(2,402) = 15.658$, $p < .001$).

다음은 가설 3과 4를 확인하기 위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가설 3의 경우, 각 경로의 유의성 검증 결과 종합적 사고유형은 미래 근접성($B = 0.053$, $t = 10.164$, $p < .001$)과 자기 연속성($B = 0.014$, $t = 2.494$, $p = .013$)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 근접성은 미래 자기 연속성($B = 0.185$, $t = 3.846$, $p < .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 사고유형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회귀 계수($B = 0.024$, $t = 4.664$, $p < .001$)보다 근접성의 영향력을 고려한 회귀 계수(0.014)의 크기가 더 작으므로 매개효과가 있다. 단, 매개 변수를 고려한 후에도

표 2. 종합적 사고유형과 장기 지향성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미래 근접성의 매개효과 (연구 1)

경로의 유의성 검증							
	경로		<i>B</i>	<i>se</i>	<i>t</i>	<i>LLCI</i>	<i>ULCI</i>
종합	→	근접성	0.053	0.005	10.164***	0.043	0.064
종합	→	자기연속성	0.014	0.006	2.494*	0.003	0.025
근접성	→	자기연속성	0.185	0.048	3.846***	0.090	0.279
장기 지향성	→	근접성	0.072	0.008	9.286***	0.057	0.087
장기 지향성	→	자기연속성	0.028	0.008	3.526***	0.013	0.044
근접성	→	자기연속성	0.169	0.047	3.617***	0.077	0.261

간접효과 검증						
독립	매개	종속	<i>B</i>	<i>BootSE</i>	95% 신뢰구간	
					<i>BootLLCI</i>	<i>BootULCI</i>
종합	근접성	자기연속성	0.010	0.003	0.004	0.016
장기 지향성	근접성	자기연속성	0.012	0.004	0.005	0.020

* $p < .05$, *** $p < .001$.

여전히 종합적 사고유형의 회귀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부분 매개라 볼 수 있다. 미래 근접성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종합적 사고유형이 미래 근접성을 경유하여 미래 자기 연속성에 이르는 경로의 부분 매개를 5000번 반복추출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종합적 사고유형이 미래 근접성을 경유하여 미래 자기 연속성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010$, $CI [0.004 \sim 0.016]$).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추가로, 종합적 사고유형의 어느 하위 요인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과성'($B = 0.020$, $CI [0.008 \sim 0.035]$), '변화 지각'($B = 0.014$, $CI [0.006 \sim 0.023]$), '주의의 위치'($B = 0.019$, $CI [0.009 \sim 0.030]$)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설 4의 경우, 각 경로의 유의성 검증 결과

장기 지향성은 미래 근접성($B = 0.072$, $t = 9.286$, $p < .001$)과 미래 자기 연속성($B = 0.028$, $t = 3.526$, $p < .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미래 근접성은 미래 자기 연속성($B = 0.169$, $t = 3.617$, $p < .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장기 지향성의 단독 효과를 보면 회귀 계수가 0.040이나, 장기 지향성과 미래 근접성 모두를 고려한 회귀 계수는 0.028로 줄어들어 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여전히 장기 지향성의 회귀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부분 매개라고 볼 수 있다. 경로의 부분 매개를 5000번 반복추출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장기 지향성이 미래 근접성을 경유하여 미래 자기 연속성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012$, $CI [0.005 \sim 0.020]$). 따라서 가설 4은 지지되었다. 추가로, 장기 지향성의 어느 하위 요인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통'($B = 0.020$, $CI [0.010 \sim$

0.032])과 '계획'(B = 0.019, CI [0.008 ~ 0.03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Hong 등(2021)과 Ji 등(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점이 있다. Hong 등(2021)의 연구에서는 종합적 사고유형 중 인과적 특징이 자기 연속성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는데,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둘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Ji 등(2019)의 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과거나 미래를 가깝게 느끼는 특징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변에 주의를 두는 특징(종합적 사고유형 중 '주의의 위치')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주변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나 미래를 고려하는 특징이 미래 자기 연속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더불어 유사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비교하여, 기존에 알려진 동서양의 사고방식 차이 중 종합적 사고와 장기 지향성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밝혔으며, 기존의 문화 비교 연구를 넘어서 개인 차이의 영역에서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Ji 등(2019)의 연구에서는 과거 지향적인 특징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도 마찬가지로, 가설 4의 매개효과 분석에서 미래 지향과 과거 지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러나 둘의 설명력을 동시에 본 중다 회귀 분석에서는 과거의 전통을 중시하는 특징이 미래 자기 연속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했다(B = 0.026, t = 1.726, p = .085). 따라서 과거를 중시하는 특징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종합적 사고유형과 분석적 사고유형이 구분되는 배경에는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집단주의-개인주의의 이분법적인 구분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단주의 문화에서도 다양한 층위가 있다고 제안한다(예: Hardin, Leong & Bhagwat, 2004). 예를 들어, 같은 집단주의적 성격을 보이더라도 집단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예: Brewer & Chen, 2007; Oyserman, Coon & Kemmelmeier, 2002). 본 연구 결과는 집단주의적 성격에서 다양한 층위가 있다는 의견을 지지한다. 적어도 종합적 사고유형이 미래 자기를 지각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그렇다. 단순히 집단주의적 문화를 가진 동양인이 더 높은 자기 연속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에서 두드러지는 일부 사고 특성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관여하며, 어떤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종합적 사고유형의 하위 요인인 '모순에 관한 태도'와 '변화 지각'은 미래 자기 연속성과 관련이 적었다. 유사하게, 사회계층 간 종합적 사고유형의 차이를 다룬 김범준(2016)의 연구에서도 종합적 사고유형이 두 세트로 나뉘어 '인과성'과 '주의의 위치'는 모든 사회계층 집단이 공유하지만 '모순에 관한 태도'와 '변화 지각'은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연구 주제가 다르기에 조심스럽지만, 종합적 사고유형 내에서도 크게 두 특성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인과성'이나 '주의의 위치'는 단순히 맥락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모순에 관한 태도'나 '변화 지각'은 어쩌면 주어진 집단에 균열을 일으킬 수도 있는 주변 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해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조화나 균형에 초점을 맞추려는 특성일지도 모른다. 미래 자기 연속성이 미래 자기를 위해 현재를 조절(변화)하려는 동기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둘은 어쩌 보면 상충할 수도 있다. 본 연구 결과에만 한정해서 말하자면, 종합적 사고 중 집단의 균형이나 조화와 관련한 변인은 미래 자기 연속성과는 다소 상관이 없는 요인일 수도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에서는 주변 맥락에 초점을 두는 특성에만 집중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종합적 사고유형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다. 둘째, 미래 근접성이 이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방 법

연구 대상

충청도 소재 모 대학교 내 재학생 및 서울 소재 모 대학교 내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달 동안 익명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중도 탈락자 5명을 제외하고 총 25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70%, 평균 나이는 22.5세였다.

측정 도구

종합적 사고유형

Hong 등(2021)의 연구와 Ma-Kellams & Blascovich(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종합적 사고유형 점화 과제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과제는 종합적, 혹은 분석적 사고유형을 설명한 가상의 논문을 읽고 글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종합적 사고유형을 점화하는 글에서는 주변 맥락에 초점을 두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한다. 글을 읽은 후, 주변의 단어나 맥락에 초점을 맞췄던 자신의 경험을 간단하게 작성한다. 분석적 사고유형을 점화하는 글에서는 사건의 주변이 아니라 사건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요지의 글을 읽고, 마찬가지로 사건 그 자체에 집중한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간단하게 작성한다.

미래 자기 연속성

연구 1과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미래 근접성

연구 참여자에게 “지금으로부터 10년 뒤가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십니까?”를 7점 척도(1: 전혀 아니다, 7: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문항 옆에 실제 날짜(예: 2032년 11월)를 제시하여 10년 뒤라는 단어가 주는 모호함을 최소화하였다.

연구 과정 및 자료 분석

설문 내용은 사전에 IRB의 심의를 받았으며, 참여자는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참여 보상으로 3,000원 상당의 기프트콘이 제공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성향적 사고유형, 미래 자기 연속성, 미래근접성을 측정했다. 그 후, 임의로 두 집단 중 하나에 배정되었다. 두 집단 모두 글을 읽고 관련 질문에 답변하였다. 조작 점검 문항을 작성한 후, 근접성 및 미래 자기 연속성을 측정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 t 검증을 사용하였으며, 가설 3인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model 4)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도구는 SPSS 21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논의

분석에 앞서 조작 점검을 진행했다. 종합적 사고유형 점화에 앞서 개인의 종합적 사고유형, 미래 자기 연속성, 시간적 거리 지각 수준을 확인했다. 종합적 사고유형은 연구 1에서 자기 연속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던 ‘인과성’ 및 ‘주위의 위치’를 7점 척도(1: 전혀 아니다, 7: 매우 그렇다)로 질문하였으며, 점수의 평균치를 분석하였다. 두 집단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253) = 0.278, p = .781$). 미래 자기 연속성($t(253) = -0.949, p = .344$) 및 시간

적 거리 지각($\alpha(253) = -1.452, p = .148$) 역시 두 집단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간적 거리 지각은 연구 1에서 사용한 슬라이드 측정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미래 자기 연속성은 유사한 질문(“미래 자기가 얼마나 현재 자기처럼 느껴지는가”)을 벤 다이어그램이 아닌 7점 척도(1: 전혀 아니다, 7: 매우 그렇다)로 질문하였다. 종합적 사고유형이 조작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Hong 등(2021)의 질문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서로 관련이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서로 독립적이다(역채점).”를 질문했으며, 종합적 사고유형을 점화한 집단이 위 질문에 더 동의하였다($\alpha(253) = 6.462, p < .001$).

종합적 사고유형 점화가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한 결과, 종합적 사고유형을 점화한 집단($M = 5.70, SD = 1.082$)이 그렇지 않은 집단($M = 5.40, SD = 1.024$)에 비해 미래 자기 연속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alpha(253) = 2.275, p = .024$). 따라서, 종합적 사고를 할수록, 미래 자기 연속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가설 3인 종합적 사고유형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근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

시하였다. 각 경로의 유의성 검증 결과 종합적 사고유형 점화는 근접성($B = -0.325, \tau = -2.413, p = .017$)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접성은 미래 자기 연속성($B = 0.686, \tau = 15.598, p < .001$)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 점화가 미래 자기 연속성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칠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B = -0.300, \tau = -2.275, p = .024$), 사고유형과 근접성 모두를 고려하는 경우 회귀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B = -0.077, \tau = -0.807, p = .43$). 따라서 완전 매개라고 볼 수 있다. 사고유형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근접성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분석 결과를 보면, 종합적 사고유형이 근접성을 경유하여 미래 자기 연속성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223, CI [-0.393 \sim -0.037]$). 결론적으로, 종합적 사고유형과 미래 자기 연속성의 관계를 미래 근접성이 매개한다.

표 3. 종합적 사고유형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미래 근접성의 매개효과(연구 2)

		경로의 유의성 검증					
	경로		<i>B</i>	<i>se</i>	τ	<i>LLCI</i>	<i>ULCI</i>
종합	→	근접성	-0.325	0.135	-2.413*	-0.590	-0.060
종합	→	자기연속성	-0.077	0.095	-0.807	-0.265	0.111
근접성	→	자기연속성	0.686	0.044	15.598***	0.600	0.773
		간접효과 검증					
	독립	매개	종속	<i>B</i>	<i>BootSE</i>	95% 신뢰구간	
						<i>BootLLCI</i>	<i>BootULCI</i>
종합		근접성	자기연속성	-0.223	0.090	-0.393	-0.037

* $p < .05$, *** $p < .001$.

종합적 사고 집단이 1, 분석적 사고 집단이 2로 코딩되었음.

연구 3

연구 3에서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장기 지향성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다. 둘째, 미래 근접성이 이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방 법

연구 대상

두 집단에서 설문을 수집하였다. 첫째, 충청도 소재 대학교의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둘째, 서울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중도 탈락자 6명을 제외한 15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성비는 여성이 66%, 나이 평균은 22.1세였다.

측정도구

장기 지향성

Kopalle 등(2010)의 장기 지향성 점화 과제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과제는 장기 지향적 사고 점화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눈다. 장기 지향적 사고 점화 집단에서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선택에 관한 가상의 논문 중 한 단락을 읽는다. 글을 읽은 후, 미래의 보상을 위해 현재 참았던 경험을 간단하게 작성한다. 통제 집단의 경우, 일상의 반복적인 행동에 관한 가상의 논문 중 한 단락을 읽고 나서 평소 저녁에 하는 행동에 관해 작성한다.

미래 근접성

연구 2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미래 자기 연속성

연구 1 및 연구 2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과정 및 자료 분석

연구 과정 및 분석 방법은 연구 2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단 사고유형이 장기 지향성 과제로 바뀌었다.

결과 및 논의

분석에 앞서 조작 점검을 진행했다. 장기 지향성 점화에 앞서 개인의 장기 지향성, 미래 자기 연속성, 시간적 거리 지각 수준을 확인했다. 미래 자기 연속성 및 시간적 거리 지각의 경우, 연구 2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장기 지향성의 경우, 연구 1에서 사용한 성향적 장기 지향성 척도로 측정하였다. 장기 지향성($\alpha(157) = -0.498, p = .619$), 미래 자기 연속성($\alpha(157) = 0.626, p = .532$), 시간적 거리 지각($\alpha(157) = -1.150, p = .252$) 모든 경우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아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장기 지향성 조작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Bearden 등(2006)의 장기 지향성 문항 중 하나를 변형하여 “미래의 결과를 위해 당장의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희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를 질문하였다. 장기 지향성을 점화한 집단에서 본 문항에 동의한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기에($\alpha(157) = 4.041, p < .001$), 조작이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장기 지향성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한 결과, 장기 지향성을 점화한 집단($M = 3.78, SD = 1.483$)이 점화하지 않은 집단($M = 3.15, SD = 1.207$)에 비해 미래 자기 연속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alpha(157) = 4.041, p < .001$. 따라서 장기 지향적일수록 미래 자기 연속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가설 2 지지).

표 4. 장기 지향성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미래 근접성의 매개효과(연구 3)

경로의 유의성 검증						
경로		<i>B</i>	<i>se</i>	<i>t</i>	<i>LLCI</i>	<i>ULCI</i>
장기 지향성	→ 근접성	-0.601	0.182	-3.302**	-0.961	-0.242
장기 지향성	→ 자기연속성	-0.304	0.213	-1.429	-0.726	0.118
근접성	→ 자기연속성	0.580	0.091	6.407***	0.401	0.758

간접효과 검증						
독립	매개	종속	<i>B</i>	<i>BootSE</i>	95% 신뢰구간	
					<i>BootLLCI</i>	<i>BootULCI</i>
장기 지향성	근접성	자기연속성	-0.348	0.13	-0.632	-0.122

** $p < .01$, *** $p < .001$.

장기 지향성 집단이 1, 통제 집단이 2로 코딩되었음.

다음은 가설 4인 장기 지향성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미래 근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각 경로의 유의성 검증 결과 장기 지향성은 미래 근접성($B = -0.601, t = -3.302, p = .001$)에, 미래 근접성은 미래 자기 연속성($B = 0.580, t = 6.407, p < .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지향성이 미래 자기 연속성($B = -0.652, t = -2.822, p = .005$)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장기 지향성과 미래 근접성을 모두 고려한 회귀 계수($B = -0.304, t = -1.429, p = .156$)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완전 매개라고 볼 수 있다. 장기 지향성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미래 근접성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였다. 장기 지향성이 미래 근접성을 경유하여 미래 자기 연속성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0.348, CI [-0.632 \sim -0.122]$). 결론적으로, 장기 지향성과 미래 자기 연속성의 관계를 미래 근접성이 매개한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미래 자기 연속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고자 실시되었다. 미래 자기 연속성은 다양한 행동과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미래 자기 연속성은 성향 차이이기도 하나 환경적 맥락에 의해서 변하기도 한다(Bartels & Urminsky, 2011; Nurra & Oyserman, 2018). 이에 따라, 최근에는 미래 자기 연속성의 결과 뿐 아니라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변인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문화가 있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람이 서양 문화권의 사람보다 더 미래 자기 연속성이 높게 나타난다(Ji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가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주변 맥락을 보는 집중하는 특성인 사고유형 및 현재가 아닌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 지향성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문화적으로 동질한 상황에서 이를 검증하여 과연 사고유형과 장기 지향성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자 했다.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 미래 근접성이 있다. 미래 자기를 가깝게 느낄수록 미래 자기 연속성은 증가한다. 그런데, 기존의 문화 비교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사람들이 미래를 더 가깝게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Lee et al., 2011), 맥락 중심적 특성이 이에 관여한다고 보고하였다. Ji 등(2019)의 연구에서도, 비록 이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사고유형을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중국인들이 미래 또는 과거 자기를 가깝게 느꼈으며 그 결과 미래 자기 연속성이 더 높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화 차이를 넘어서서, 맥락에 집중하는 개인적 또는 상황적 특성이 미래를 가깝게 느끼게 하는 것 및 미래 자기 연속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위 가설을 지지한다. 즉, 종합적 사고유형과 장기 지향성은 미래를 가깝게 느끼게 하며, 미래 자기 연속성을 높인다. 이 연구 결과는 Ji 등(2019)의 연구 결과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Ji 등(2019)의 연구에서는 문화권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직접 사고유형이나 장기 지향성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 결과를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이 결과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게다가 종합적 사고유형과 장기 지향성을 개인차뿐 아니라 상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도 확인하여, 이 경향의 일관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이번 연구를 통해 종합적 사고유형 중 특히 어느 부분이 미래 자기 연속성 지각에 개입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잠재적인 심리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종합적 사고유형 중 특히 ‘인과성’과 ‘주의의 위치’가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쳤다. 인과성은 현상에 관한 다양한 원인을 고려하는 특성을 의미하며, 주의의 위치는 대상 그 자체보다 주변에 주의를 두는 특성을 의미한다. 미래 지각을

대상으로 두고 인과성을 설명하자면, 미래라는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현재나 과거에 관해 생각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주의의 위치의 경우, 현재의 배경 혹은 맥락이라 할 수 있는 과거나 미래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특징일 것이다. 이는 맥락 중심적 문화 때문에 동아시아인이 미래 사건에 관해서 더 많은 맥락을 생각한다는 Maddux와 Yuki(2006)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현재와 미래의 인과관계, 즉, 현재의 시간을 파악할 때 현재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인과), 혹은 현재에 매몰되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는 특징(주의의 위치)이 미래를 가깝게 느끼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미래 자기 연속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합적 사고유형 중 특히 ‘모순에 관한 태도’는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순에 관한 태도란, 서로 주장이 대립될 때, 각 주장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중용을 선호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는 집단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동아시아 문화를 반영한다. 본 연구에 한정해서 설명하자면, Ji 등(2019)의 연구에서 동아시아인이 미래 자기 연속성이 높게 나온 이유는 맥락을 강조하는 특성 때문이지, 집단의 조화를 피하는 특성에 근거하지는 않은 듯하다.

한국 사회 내 계층 간 사고유형을 비교한 김범준(2016)의 연구에서는 종합적 사고유형 중 ‘모순에 관한 태도’와 ‘변화 지각’은 사회계층 간 차이가 있었으며, ‘인과성’과 ‘주의의 위치’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도 ‘인과성’과 ‘주의의 위치’는 미래 자기 연속성과 상관이 있었으며, ‘모순에 관한 태도’와 ‘변화 지각’은 상관이 없었다. 비록 두 연구의 주제가 달라 두 연구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종합적 사고유형에서 ‘인과성과 주의의 위치’, ‘모순과 변화 지각’이라는 두 개의 큰 범주가 하는 역할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는 집단주의 문화에 다양한 하위 유형이 있으며, 집단의 균형이나 조화를 강조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Brewer과 Chen(2007), Oyserman 등(2002)의 논의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종합적 사고유형의 각 하위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논하는 것은 본 글의 논지를 벗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종합적 사고유형의 각 하위 요인이 특정 행동이나 사고 방식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하다.

Ji 등(2019)의 연구에서는 미래 근접성보다 과거 근접성이 미래 자기 연속성 지각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중국인은 과거를 가깝게 생각했으며, 이는 과거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쳤고, 이 과거 자기 연속성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끼쳤다. Hong 등(2021)의 연구에서도, 비록 이는 문화 차이를 본 것은 아니나, 과거에 관한 감정인 노스텔지어가 종합적 사고유형 중 인과적 사고를 활성화시켰으며, 이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 자기의 연결(전반적 자기 연속성)이 강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과거 지향적인 사고(장기 지향성 척도 중 '전통' 요인)가 근접성을 통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두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장기 지향성의 두 하위 요인 모두를 회귀 분석을 한 결과, '전통' 요인이 아닌 '계획' 요인만이 미래 자기 연속성을 설명하였다. 이는 미래 자기 연속성에 과거 지각의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한 Ji 등(2019)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만을 봤을 때, 과거 지향적인 사고가 미래 자기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할 때는 제한점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결과의 차이는 조심스럽지만 몇 가지 이유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과거 자기와 미래 자기 모두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조건에서만 과거 자기 지각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장기 지향성의 '전통' 요인과 '계획' 요인을 각각 분석했을 때는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두 요인을 동시에 회귀 분석을 하는 경우 '전통'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사라졌다. 즉, 과거 자기가 미래 자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동시에 미래 자기도 함께 가깝게 느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둘째, 측정에서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기 지향성의 '전통' 하위 요인은 자신의 전통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측정하지 얼마나 과거를 거리 상으로 가깝게 느끼는지를 측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측정하는 두 가지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두 가지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유사하게, 장기 지향성 척도에서 '전통' 요인과 Hong 등(2021)의 연구에서 사용한 노스텔지어는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 Hong 등(2021)의 연구에서 정의한 노스텔지어는 개인의 과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통' 요인은 개인의 과거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가족과 문화적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확인한다. 두 요인이 질적으로 다르기에, 결과도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 자기 연속성 척도에서의 차이이다. Hong 등(2021)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 연속성 척도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미래 자기 지각(전반적 자기 연속성)을 측정하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속성 척도는 현재 자기와 미래 자기가 일치하는 정도를 다루기에 다른 차원을 측정할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미래 시간 지각과 미래 자기 연속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 연구이기에 과거 자기 연속성이나 전반적 자기 연속성, 과거 근접성에 관해서는 측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시간과 자기 연속성에 대한 더 풍성한 논의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연구 2에서 '맥락 중심'이라는 종합적 사고유형 중 한 가지 특징에 집중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종합적 사고유형의 하위 차원을 본격적으로 비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종합적 사고유형의 각 하위 차원이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에서 벗어나나, 본 연

구 결과와 김범준(2016)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 사고유형을 두 차원으로 나누어 이 둘이 정말 의사 결정과 행동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했다면 미래 자기 연속성 뿐만 아니라 종합적 사고유형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시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또한, 주변 맥락에 초점을 맞추도록 점화시키는 과제는 위 과제 말고도 다양한 과제가 있다(예: 양운, 이한슬, 2017).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주변 맥락 점화 과제를 사용하여 위 연구 결과가 일반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비교문화 연구로의 확장이 어렵다. 본 연구는 비교문화 연구를 바탕으로 하지만, 미래 자기 연속성의 개인차를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따라서 최대한 동질한 문화권의 사람(한국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차 연구에 대한 비판이 비교문화 연구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예: Taras, Steel & Kirkman, 2016), 만일 위 연구 방식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실시하고 이 차이를 비교한다면 비교문화 연구에서 지역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 혹은 중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대한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과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지역의 차이도 어느 정도 고려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일반화를 위해서는 한국 내에서도 다양한 인구 계층에게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런 점을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간은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 능력은 우리의 다양한 행동 및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예: Schacter, Benoit & Szpunar, 2017).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은 건강한 삶에 있어 중요하다(McLewee & Haugh, 2010;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공상으로 끝나기도 하며, 이런 공상은 미래 지

향적인 행동을 저해하기도 한다(Oettingen & Sevincer, 2018). 이에 따라 미래에 관한 생각은 때로 심리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보고된다(McLewee & Haugh, 2010). McLewee와 Haugh(2010)에 따르면, 미래를 생각하는 것 자체보다도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가 심리적 건강에 있어 더 중요하다.

다양한 연구에서 미래 자기 연속성은 미래와 현재의 건강한 심리적 연결을 통해 우리의 적응적 행동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미래 자기 연속성은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상하는 능력만 있다면, 미래 자기 연속성은 충분한 개입을 통해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인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자기 연속성을 높일 수 있는 개입 방법 개발의 기초를 닦고자 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래 자기와 더 친숙하게 지낼 수 있을지, 그것을 통해 어떻게 미래 지향적인 행동에 더 나설 수 있을지, 궁극적으로 어떻게 심리적으로 건강한 미래를 실제로 획득할 수 있을지를 논의할 수 있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저자 소개

임지은은 현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4단계 BK21 <한국사회의 심리적 통증, 중독, 그리고 자기조절 교육연구단> 소속 박사후과정생.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시간 지각이 다양한 판단 및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김범준 (2016). 사회계층의 심리: 문화적 사고성향(분석적-종합적 사고)과 사회비교성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30(4), 19-36.

- doi:10.21193/kjspp.2016.30.4.002
- 양 윤, 이한솔 (2017). 자기해석, 사고유형, 시간적 거리에 따른 가격-품질 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8(1), 67-92.
doi:10.21074/kjlcap.2017.18.1.67
- 양 윤, 최현진 (2019). 극대화 성향, 대안 수, 사고유형이 소비자의 결정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0(3), 297-317. doi:10.21074/kjlcap.2019.20.3.297
- 임지은 (2017). 시간적 거리, 해석수준, 주관적 시간 지각이 광고메시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8(3), 441-459. doi:10.21074/kjlcap.2017.18.3.441
- 임지은 (2019). 가깝지만 먼 시간 지각의 역설: 자기해석, 조절초점, 시간적 거리와 시간적 결과의 적합성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0(2), 257-277.
doi:10.21074/kjlcap.2019.20.2.257
- Bartels, D. M., & Rips, L. J. (2010). Psychological connectedness and intertemporal choi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9(1), 49-69.
doi:10.1037/a0018062
- Bartels, D. M., & Urminsky, O. (2011). On intertemporal selfishness: How the perceived instability of identity underlies impatient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8(1), 182-198. doi:10.1086/658339
- Bearden, W. O., Money, R. B., & Nevins, J. L. (2006). A measure of long-term orientati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34(3), 456-467.
doi:10.1177/0092070306286706
- Blouin-Hudon, E. M. C., & Pychyl, T. A. (2015). Experiencing the temporally extended self: Initial support for the role of affective states, vivid mental imagery, and future self-continuity in the prediction of academic procrast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6, 50-56.
doi:10.1016/j.paid.2015.06.003
- Blouin-Hudon, E. M. C., & Pychyl, T. A. (2017). A mental imagery intervention to increase future self-continuity and reduce procrastination. *Applied Psychology*, 66(2), 326-352.
doi:10.1111/apps.12088
- Brewer, M. B., & Chen, Y.-R. (2007). Where (Who) are collectives in collectivism? Toward conceptual clarification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logical Review*, 114(1), 133-151.
doi:10.1037/0033-295X.114.1.133
- Choi, I., Koo, M., & Choi, J. A. (2007). Individual differences in analytic versus holistic thin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5), 691-705. doi:10.1177/0146167206298568
- Hardin, E. E., Leong, F. T., & Bhagwat, A. A. (2004). Factor structure of the self-construal scale revisited: Implications for the multidimensionality of self-construal.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3), 327-345.
doi:10.1177/0022022104264125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ershfield, H. E. (2011). Future self-continuity: How conceptions of the future self transform intertemporal choice.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235(1), 30-43.
doi:10.1111/j.1749-6632.2011.06201.x
- Hershfield, H. E., Cohen, T. R., & Thompson, L. (2012). Short horizons and tempting situations: Lack of continuity to our future selves leads to unethical decision making an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17(2), 298-310.
doi:10.1016/j.obhdp.2011.11.002
- Hershfield, H., Garton, M. T., Ballard, K., Samanez-Larkin, G. R., & Knutson, B. (2009). Don't stop thinking about tomorrow: Individual

- differences in future self-continuity account for saving.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4(4), 280-286. doi:10.1017/S1930297500003855
- Hershfield, H., Wimmer, G. E., & Knutson, B. (2009). Saving for the future self: Neural measures of future self-continuity predict temporal discounting.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4(1), 85-92. doi:10.1093/scan/nsn042
- Hofstede, G & Bond, M. H. (1988). The confucious connection: From cultural roots to economic growth. *Organizational Dynamics*, 16, 4-18. doi:10.1016/0090-2616(88)90009-5
- Hofstede, G., Hofstede, G. J., & Minkov, M. (2010). 차재호, 나은영 공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정신의 소프트웨어(3rd ed.). 서울: 학지사.
- Hong, E. K., Sedikides, C., & Wildschut, T. (2021). Nostalgia strengthens global self-continuity through holistic thinking. *Cognition and Emotion*, 35(4), 730-737. doi:10.1080/02699931.2020.1862064
- Inzlicht, M., Werner, K. M., Briskin, J. L., & Roberts, B. W. (2021). Integrating models of self-regul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72, 319-345. doi:10.1146/annurev-psych-061020-105721
- James, W. (195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Dover Publications.
- Ji, L. J., Guo, T., Zhang, Z., & Messervey, D. (2009). Looking into the past: Cultural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representation of past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4), 761-769. doi:10.1037/a0014498
- Ji, L. J., Hong, E. K., Guo, T., Zhang, Z., Su, Y., & Li, Y. (2019). Culture, psychological proximity to the past and future, and self continu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9(4), 735-747. doi:10.1002/ejsp.2544
- Ji, L. J., Peng, K., & Nisbett, R. E. (2000). Culture, control, and perception of relationships in the environ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5), 943-955. doi:10.1037/0022-3514.78.5.943
- Kopalle, P. K., Lehmann, D. R., & Farley, J. U. (2010). Consumer expectations and culture: The effect of belief in karma in India.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2), 251-263. doi:10.1086/651939
- Lastovicka, J. L., Bettencourt, L. A., Hughner, R. S., & Kuntze, R. J. (1999). Lifestyle of the tight and frugal: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6(1), 85-98. doi:10.1086/209552
- Lee, S., Lee, A. Y., & Kern, M. C. (2011). Viewing time through the lens of the self: The fit effect of self-construal and temporal distance on task percep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2), 191-200. doi:10.1002/ejsp.765
- Ma-Kellams, C., & Blascovich, J. (2012). Enjoying life in the face of death: East-West differences in responses to mortality sal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5), 773-786. doi:10.1037/a0029366
- Maddux, W. W., & Yuki, M. (2006). The "ripple effect": Cultural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of ev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5), 669-683. doi:10.1177/0146167205283840
- McElwee, R. O. B., & Haugh, J. A. (2010). Thinking clearly versus frequently about the future self: Exploring this distinction and its relation to possible selves. *Self and Identity*, 9(3), 298-321. doi:10.1080/15298860903054290
- Molouki, S., & Bartels, D. M. (2017). Personal change and the continuity of the self. *Cognitive Psychology*, 93, 1-17. doi:10.1016/j.cogpsych.2016.11.006
- Nisbett, R. E., Peng, K., Choi, I., & Norenzayan, A.

-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2), 291-310.
doi:10.1037/0033-295X.108.2.291
- Nurra, C., & Oyserman, D. (2018). From future self to current action: An identity-based motivation perspective. *Self and Identity*, 17(3), 343-364.
doi:10.1080/15298868.2017.1375003
- Oettingen, G., & Sevincer, A. T. (2018). Fantasy about the future as friend and foe. In G. Oettingen, A. T. Sevincer, & P. Gollwitzer (Eds.), *The psychology of thinking about the future* (pp. 127-149).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Oyserman, D., Coon, H. M., & Kemmelmeier, M.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1), 3-72.
doi:10.1037/0033-2909.128.1.3
- Parfit, D. (1971). Personal identity. *Philosophical Review*, 80(1), 3-27. doi:10.2307/2184309
- Peetz, J. & Wilson, A. (2008). The temporally extended self: The relation of past and future selves to current identity, motivation, and goal pursuit.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 2090-2106.
doi:10.1111/j.1751-9004.2008.00150.x
- Pronin, E., Olivola, C. Y., & Kennedy, K. A. (2008). Doing unto future selves as you would do unto others: Psychological distance and decision ma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2), 224-236.
doi:10.1177/0146167207310023
- Rutchick, A. M., Slepian, M. L., Reyes, M. O., Pleskus, L. N., & Hershfield, H. E. (2018). Future self-continuity is associated with improved health and increases exercise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24(1), 72-80. doi:10.1037/xap0000153
- Rutt, J. L., & Löckenhoff, C. E. (2016). From past to future: Temporal self-continuity across the life span. *Psychology and Aging*, 31(6), 631-639.
doi:10.1037/pag0000090
- Schacter, D. L., Benoit, R. G., & Szpunar, K. K. (2017). Episodic future thinking: Mechanisms and functions. *Current Opinion in Behavioral Sciences*, 17, 41-50.
doi:10.1016/j.cobeha.2017.06.002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Happiness, excellence, and optimal human function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5-183.
doi:10.1037/0003-066X.55.1.5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doi:10.1037/1082-989X.7.4.422
- Sokol, Y., & Serper, M. (2019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uture self-continuity questionnaire: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02(5), 677-688.
doi:10.1080/00223891.2019.1611588
- Sokol, Y., & Serper, M. (2019b). Experimentally increasing self-continuity improves subjective well-being and protects against self-esteem deterioration from an ego-deflating task. *Identity*, 19(2), 157-172.
doi:10.1080/15283488.2019.1604350
- Taras, V., Steel, P., & Kirkman, B. L. (2016). Does country equate with culture? Beyond geography in the search for cultural boundarie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56, 455-487.
doi:10.1007/s11575-016-0283-x
- Spassova, G., & Lee, A. Y. (2013). Looking into the future: A match between self-view and temporal dista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0(1), 159-171. doi:10.1086/669145
- Trope, Y., & Liberman, N. (2010). Construal-level

- theory of psychological distance. *Psychological Review*, 117(2), 440-463. doi:10.1037/a0020319
- Wong, V. C., & Wyer Jr, R. S. (2016). Mental traveling along psychological distances: The effects of cultural syndromes, perspective flexibility, and construal lev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1(1), 17-33. doi:10.1037/pspa0000048
- Zhang, Y., & Chen, M. (2018). Character strengths, strengths use, future self-continu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Chinese university students. *Frontiers in Psychology*, 9, 1040. doi:10.3389/fpsyg.2018.01040
- Zauberman, G., Kim, B. K., Malkoc, S. A., & Bettman, J. R. (2009). Discounting time and time discounting: Subjective time perception and intertemporal preferenc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6(4), 543-556. doi:10.1509/jmkr.46.4.543
- Zimbardo, P. G., & Boyd, J. N. (2008). 오정아 역. 왜 나는 시간에 쫓기는가. 광주: 프런티어

1 차원고접수 : 2023. 09. 18.

수정원고접수 : 2023. 10. 25.

최종게재결정 : 2023. 10. 26.

The effects of holistic thinking style and long-term orientation on the future self-continuity: Mediation by proximity of the future

Jieun L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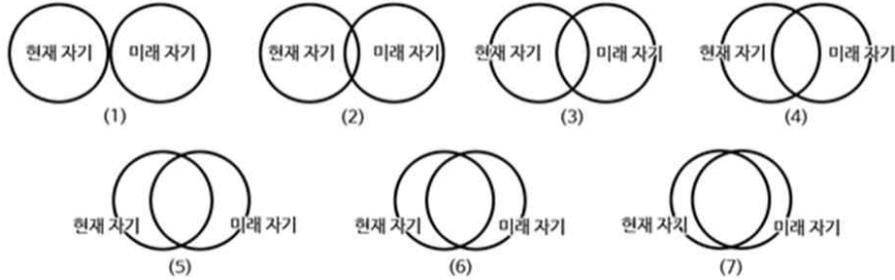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and the research on cultural differences in future self-continuity. Specifically, the study measured holistic thinking style and a long-term orientation, known to be predominant in East Asian culture, at the dispositional and contextual levels, and explored how these tendencies influence perceiving future self-continuity. The result showed that a holistic thinking style and long-term orientation increased future self-continuity. Also, these relationships were mediated by the proximity of the future time distance. This study presents the need to explore various variables related to future self-continuity. This study aimed to build upon prior research regarding cultural differences in individuals' perceptions of their future selves in both East and West contexts. More specifically, it sought to investigate whether a higher degree of holistic thinking and long-term orientation were associated with an enhanced sense of future self-continuity, irrespective of cultural contexts. To test this hypothesis, Study 1 examined how individual differences in holistic thinking and long-term orientation might impact future self-continuity. In Studies 2 and 3, holistic thinking styles and long-term orientation were experimentally manipulated to assess the resulting differences in future self-continuity among groups. The study's findings indicated that individuals with a more holistic thinking style and a stronger long-term orientation exhibited a heightened sense of future self-continuity. Furthermore, it was discovered that this relationship was mediated by the perception of temporal proximity. Overall, this research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exploring various factors that may influence an individual's perception of future self-continuity.

Key words : future self-continuity, analytic-holistic thinking, long-term orientation, temporal distance, future proximity

부록 1

미래 자기 연속성 척도



부록 2

종합적 사고유형과 장기 지향성의 하위 요인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미래 근접성의 매개효과(연구 1)

표 1. 종합적 사고유형의 하위 요인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미래 근접성의 매개효과(연구 1)

			경로의 유의성 검증				
경로			<i>B</i>	<i>se</i>	<i>t</i>	<i>LLCI</i>	<i>ULCI</i>
인과	→	근접성	0.125	0.012	10.33***	0.101	0.149
인과	→	자기연속성	0.047	0.013	3.629***	0.023	0.073
근접성	→	자기연속성	0.160	0.048	3.341***	0.066	0.253
모순	→	근접성	0.016	0.015	1.112	-0.012	0.045
모순	→	자기연속성	-0.008	0.013	-0.665	-0.033	0.016
근접성	→	자기연속성	0.240	0.043	5.563***	0.155	0.325
변화	→	근접성	0.058	0.013	4.592***	0.033	0.083
변화	→	자기연속성	0.009	0.012	0.813	-0.013	0.032
근접성	→	자기연속성	0.231	0.044	5.215***	0.144	0.318
주의	→	근접성	0.089	0.013	6.726***	0.063	0.115
주의	→	자기연속성	0.024	0.013	1.910	-0.001	0.049
근접성	→	자기연속성	0.211	0.045	4.66***	0.122	0.300
			간접효과 검증				
독립	매개	종속	<i>B</i>	<i>BootSE</i>	95% 신뢰구간		
					<i>BootLLCI</i>	<i>BootULCI</i>	
인과	근접성	자기연속성	0.020	0.007	0.008	0.035	
모순	근접성	자기연속성	0.004	0.004	-0.003	0.013	
변화	근접성	자기연속성	0.014	0.004	0.006	0.023	
주의	근접성	자기연속성	0.019	0.005	0.009	0.030	

*** *p* < .001.

표 2. 장기 지향성의 하위 요인이 미래 자기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미래 근접성의 매개효과(연구 1)

			경로의 유의성 검증				
경로			B	se	t	LLCI	ULCI
계획	→	근접성	0.107	0.012	8.604***	0.082	0.131
계획	→	자기연속성	0.044	0.013	3.467***	0.019	0.068
근접성	→	자기연속성	0.176	0.046	3.794***	0.085	0.266
전통	→	근접성	0.097	0.015	6.573***	0.068	0.126
전통	→	자기연속성	0.032	0.014	2.251*	0.004	0.059
근접성	→	자기연속성	0.207	0.045	4.589***	0.118	0.296
			간접효과 검증				
독립	매개	종속	B	BootSE	BootLLCI	BootULCI	
계획	근접성	자기연속성	0.019	0.006	0.008	0.030	
전통	근접성	자기연속성	0.020	0.006	0.010	0.032	

* $p < .05$, *** $p < .001$.